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나와바리(縄張り)

일본 사회의 집단의존적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바리이며, 관공서 등의 관료집단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.

□ 일본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나와바리

- 원래 나와바리는 가라쿠라(鎌倉)시대 이후부터 전해지는 말로 당시 군대가 설정해 놓은 영역이나 성곽을 둘러싼 대지를 뜻했음
- 에도(江戸)시대에 들어오면서 야쿠자나 도박사들이 자기들만의 세력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음
- 현재는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의 야쿠자 세계뿐 아니라 기업과 관공서 등의 관료 집단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
- 일본 사회의 여러 집단에서 보이는 나와바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줌

□ 일본 관료사회에서의 나와바리

- 일본의 관료사회에서 나타나는 나와바리 성향은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힘

- 공적인 역량이 미치는 곳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도 용서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관료들의 근성을 종종 비꼬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함
- 야쿠닌(役人,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칭함)의 직무가 미치는 범위는 절대 범할 수 없는 성역이며, 이 성역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근성을 야쿠닌곤조(役人根性)라고 함

□ 일본 기업들의 사업부제 운영

- 나와바리 아라소이(縄張り争い, 세력다툼)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나머지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비효율을 야기하게 됨
- 이런 사례는 일본 기업들이 앞 다투어 도입한 사업부제의 운영에서 쉽게 엿볼 수 있음
- 사업부제는 기업의 내부를 제품·고객·지역 등에 따라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(이 단위를 사업부라고 함) 그 단위에 자재 구입에서부터 생산·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업수행을 맡겨 독립회사처럼 운영시키는 분권적 관리조직을 말함
- 자신들만의 사업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다른 사업부와 연계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함
- 사업부간의 영역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간의 왕래는 물론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빚어짐
- 즉, 사업부별로 가지고 있던 자신들만의 탄탄한 결속력이 전체

조화를 불가능하게 했던 것임

- 일본에서 가장 먼저 사업부제를 도입했던 마쓰시다(松下)는 2002년 대대적인 사업구조개혁을 통해 사업부제를 전면 해체함
- 그 결과 사내에서 기술자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상품개발력이 강화되어 시장에서 연이어 히트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음
- 이로 인해 경쟁사들 보다 먼저 힘들었던 장기불황에서 헤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

□ 나와바리와 일본인의 집단적 의식구조

- 나와바리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동물적 감각에서 야기되는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행동양식일 수 있음
- 좁게는 개인이 가지려는 자기만의 공간 역시 일종의 나와바리로 볼 수 있으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방패가 나와바리라면 그것은 막아야 할 것임
- 일본 역시 세력범위를 확대하려는 나와바리 근성(縄張り根性)이 확산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임
- 분명한 것은 집단의존적인 일본사회의 단면을 나와바리를 통해 엿 볼 수 있다는 것임
- 나와바리와 함께 일본인의 집단의존적 의식구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단어로 한패 혹은 동료란 뜻하는 나카마(仲間)가 있음

- 남이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즉 나카마이리(仲間入り)를 하기 위해서는 꼭 조직폭력배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관문을 통과해야 함
 - 그 관문은 많은 경우 나카마가 될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통점으로 대신하게 됨
 - 한번 나카마라는 집단 속에 몸을 맡기게 되면 다시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나카마하즈레(仲間はずれ)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며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움
 - 또한 동료내지는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칭할 때 우치(内)라는 표현을 같이 씀.
- * 우치(内)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밖에 위치하는 것은 모두 소토(外)로 취급하여 분명하게 안과 밖을 명시화하며 내부의 결속력을 다짐